



# 한국교회와 성경 영감과 무오

## Biblical Inspiration and Infallibility of Korean Church

김 근 수

(부총장/신약신학)

### 目 次

- I. 서론
- II. 한국교회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성경관
- III.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성경무오 부인(否認) 및 논쟁의 연대기적 고찰(考察)
  - 3.1 1930년대 이전 성경 무오 부인(否認)
  - 3.2 1930년대 이후 성경관 대립
  - 3.3 1960년대 이후 성경 무오 부인(否認)
- IV. 성경무오 부인의 사상적 배경 고찰(考察)
  - 4.1 '신학함'의 자율성
  - 4.2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영향
- V. 성경 영감과 완전 무오의 성경적, 신앙적 근거
  - 5.1 성경 완전 무오의 자증
  - 5.2 성경 영감의 범위
  - 5.3 성경 무오 신앙과 한국교회의 역사 경험
- VI. 결론

## I. 서론

18세기 이후 신학계에서는 성경 영감과 무오를 완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시작했다. 계시보다 이성을 우위에 두는 합리주의 신학<sup>1)</sup>이 성행하면서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은 모두 배제되었다. 성경의 완전 무오성은 비이성적인 소산으로 간주되었으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sup>2)</sup>란 선언은 무시됐다. 성경의 부조화, 비과학성, 비 역사성이 강조됐고, 근동 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은 고대 종교의 하나로 규정지어졌다. 성경은 다양한 문서의 짜집기로 이루어졌고,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쓴 소설로 간주됐다. 벨하우젠<sup>3)</sup>은 문서설을 주장하며 모세 오경이 전승 혹은 여러 자료들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했다. 슈바이처<sup>4)</sup>는 그의 저서 “역사적 예수 탐구(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에서 신약 성경의 모든 이적을 부정했고, 윤리적 책으로 간주했다.

또 다른 운동이 세계대전 발발 이후 발생했다. 합리주의 신학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신학계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이 운동은 칼 바르트가 이끄는 신정통주의 신학이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지향했고, 성경의 무오성<sup>5)</sup>을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은 여전히

1) 계몽사상의 기반으로 “이성이 표준이 된다”고 한 르네상스의 산물이다; W. G. Kuemmel, *The NT: The History of the Investigation of its Problems* (Nashville, 1972), pp. 51-72를 보라.

2)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p. 44.

3) 벨하우젠(J. Wellhausen, 1844-1918)을 축으로 헤겔-다윈의 인과론적, 진화론적 역사철학의 원리를 따른 역사주의적 자료 비평학이 발전했다. 이 학파는 “역사주의적” 자료 비평학을 오경에 적용하여 문서자료를 분류해 내고, 그 문서자료들을 진화론적 역사주의 해석원리에 따라 분석 검토했다. 톨란드 해리슨, 「구약 서론 (상)」, 류호준·박철현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의 제 1부 “구약연구의 발전”을 보라.

4) 역사 비평주의 방법으로 예수의 생애를 탐구한 Albert Schweitzer,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A Critical Study of Its Progress from Reimarus to Wrede*, W. Montgomery trans. (London:A & C. Black, 1910)를 보라.

5) 칼바르트는 1918년 출판된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성경

히 합리주의와 실존주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기에 성경의 역사성을 의미사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했다. 바르트의 영향 하에 있던 맥커리는 “성경 자체는 계시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던 원초 계시에 접근하기 위해 열어놓은 하나의 중요한 길이다”<sup>6)</sup>라고 필역했다. 그는 성경이 계시의 무오한(infallibility) 기록이 아니고, 주관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이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이 완전하다는 신앙이 사라지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던 모든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구라파의 수많은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 건물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백화점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복음주의 학자들은 지난 1978년에 “성경 무오성 국제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sup>7)</sup>로 모여 성경의 영감과 완전 무오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심의회는 지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 전도회의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이 두 협의회에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신적 영감과 진실성 및 권위와 성경 자체가 단언하는 모든 것에서 오류가 없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정확무오한 법칙임을 믿는다고 선언했다.<sup>8)</sup>

---

연구에 있어서의 역사 비평법은 그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코 피상적이 아니며 이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준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것과 종전의 영감교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후자를 결정적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것은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중요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 없이는 모든 준비가 무가치한 이해 작업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내가 양자택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행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성경의 영, 즉 영원한 영 속을 들여다보는데 나의 모든 관심의 방향이 있다.” K. Barth, *The Epistle to Romans*, E.c. Hoskyns trans. (London, 1933); 게하르트 하젤, 「신약신학: 현대논쟁의 기본 이슈들」, 권성수 역 (서울:엠펙, 1994), p. 57 재인용.

- 6) John Macquarrie, *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 (New York:Scribner's, 1977). p. 9.
- 7) 본 협의회에서는 신정통주의의 성경관에 대해 비판하고, ‘시카고 선언’을 작성하였다. Jay Grimstead, “How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Began”, *Crosswinds* volume II, number 2 (1994), p. 2.
- 8)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김의환 전집 3권」(서울: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pp. 423, 424.

성경 완전 무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비단 국외적인 활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3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경 부분 무오설 혹은 문서설에 대해 박형룡 박사<sup>9)</sup>을 축으로 꾸준히 비판해 왔다.<sup>10)</sup>

그러나, 성경 완전 무오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직도 확산되고 있으며, 설교에까지 합리주의 혹은 신정통주의 사상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기반이 되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수호하고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 성경의 영감과 완전 무오는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든 성경이 자증하고 있는 바이다. 이를 밝히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과업이다.

필자는 한국 교회사의 성경 완전 무오 부정에 대한 견해를 살피고,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살필 것이다. 이는 성경 유오론자들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의 자증을 통한 근거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적 결단을 했는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성경 영감과 완전 무오성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 II. 한국교회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성경관

한국 초창기 타교단과 달리<sup>11)</sup>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상은 청교도적이고, 복

9) 다음은 신학지남에 실린 박형룡의 성령 무오론 변론 혹은 자유주의 비판의 글들이다. 성경 영감의 목회적 교리 (1963, 12월호),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1964, 9월호), 「자유주의 신학」 (1968년, 겨울호) 등을 참조하라

10) 「신학지남」에 실린 박윤선의 논문들인 “발트 계시관에 대한 비평” (19권 5호), “우리의 성경”(1967년 여름호), “성경의 권위” (1971, 봄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위기신학” (1980, 여름호)를 참조하라; 기장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아론의 글 “밖에서 본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지남」 여름호(1993)를 보라; 성경 무오에 관한 7 대 오해를 변증해 주고 있는 권성수의 “성경 해석학” (총신대학출판부, 1991)을 보라; 성경 무오론을 소고한 배종수의 논문 “성경무오론에 관한 소고”, 「신학논문총서 조직신학」 1 (서울: 학술정보자료사, 2004)을 보라.

음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존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01년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친 마포 삼열 선교사는 선교회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을 믿는 철저한 믿음과 열정적인 복음주의 정신을 지녔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2)</sup> 1934년 한국 선교 회년 기념식에서 찰스 알렌 클라크(Charles Allen Clark)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성경은 복음화의 가장 지대한 요인이었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sup>13)</sup>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신적인 책, 그리고 권위 있는 책”이라는 구 프린스톤의 성경관이였다.<sup>14)</sup>

이와 같은 성경관은 독노회가 결성되면서 소위 12신조로 알려진 장로교 신앙고백에 영향을 미쳤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법칙이라고 명문화 시키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sup>15)</sup>도 있으나, 12신조의 제정 당시 한국 교회는 영감론에 대한 논쟁이 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 무오란 표현을 기입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당시 프린스톤 신학자들을 예로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장로교회가 성경관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12신조 제 1조에서 성경의 영감은 부분적인 영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

11)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이정호는 그의 논문 “한국교회의 성서 이해”에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감리교는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권을 의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정호, “한국교회의 성서 이해”, 『기독교 사상』 7월호(1970), p. 105.

12) 박영규, 『한국기독교교회사』(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p. 241.

13) Ibid., p. 241.

14)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서울: 도서출판 실로암, 1991), p. 1.

15)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 박창환은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이 조문에서 밝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구약 성경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틀림없으나, 그것이 어떤 면으로든지, 반드시 정확무오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그 법칙을 가리켜 주는 유일한 책이라고 말한다”; 박창환, 『교회와 신학』, “성경무오설에 관하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70), p. 83.

영감 또는 축자영감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sup>16)</sup>

### Ⅲ.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성경 무오 부인(否認) 및 논쟁의 연대기적 고찰

#### 3.1 1930년대 이전 성경 무오 부인(否認)

1897년 10월 14일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한 윌리엄 헌트(William Hunt, 1869-1953)는 그가 내한하던 해에 한국 장로교 선교회 안에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는 선교사가 적어도 한명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이 문제는 1930년까지 표면화 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장 되었다. 특히, 이들 중 뉴욕 유니온 신학교 출신 선교사로 공위량(William Kerr)을 들 수 있는데, 그는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전통적인 한국 장로교 신학에 반기를 든 김장호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위량은 1923년 미국 북장로교 총회가 1910년과 1916년에 이미 천명했던 성경의 무오성,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등 다섯 개의 근본진리를 재천명하자 미국 북장로교 내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1924년 발표한 ‘어번 선언’<sup>18)</sup>을 발표할 때 서명했던 1293명 중 한명이었다.<sup>19)</sup> 그는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던, 브릭스(Briggs)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891년 뉴욕의 유니온(Union)

16) 박용규, 「한국기독교교회사」, p. 491.

17) Ibid., p. 608.

18) 어번 선언문은 1924년에 총회에서 헨리 슬로언 코핀(Henry S. Coffin)과 그의 동료들이 제출한 것이다. 코핀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의 진화하는 종교적 경험의 제한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의 덜 발전된 부분들은 “예수의 신앙”의 절정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브래들리 J. 롱필드, 「미국장로교회 논쟁」, 이은선 역 (서울:아가페문화사, 1992), p. 146; Henry S. Coffin, *Some Christian Convictions* (New Haven: Hodder & Stoughton, 1915), pp. 49-51을 참조하라.

19) 박용규, 「한국기독교교회사」, p. 610.

신학교 구약교수 취임사에서 브릭스(Briggs)는 프린스턴 영감교리를 완전 거부했다. 그는 성경의 오류로 미신, 축자영감, 서역의 진정성, 무오, 기적, 예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연설은 모든 고등비평주의자들을 선동하여 정통 교리를 대항하는 선전포고 역할을 했다. 브릭스(Briggs)는 1881-1893년까지 12년간 워필드(Warfield)와 격렬한 논쟁을 했다.<sup>20)</sup> 워필드는 1915년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독자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일생의 과업을 요약한 바 있다.<sup>21)</sup> 어쨌든, 공위량과 더불어 유니온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이는 몇몇 목사들에게 가입함으로써 성경 유오론이 가시화 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도 성경의 유오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931년에 기록된 “Korea: Land of Dawn”에서 의료 선교사 밴 부스컬크(James Dale Van Buskirk)는 1920년대에 세브란스 의과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과 토론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물질주의 옹호론자들이 그들의 정력의 대부분을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심지어 공개적인 반기독교 운동을 벌이는데 소모해 왔다. 과학과 종교의 충돌이 그것을 확산시켰다. 성경은 특별한 공격 목표였다. 그것은 세계에서 놀랍게 성장한 종교 서적, 부도덕으로 가득찬, 그 자체와도 불일치하며 과학의 계시와도 조화될 수 없는 서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성경을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우스운 일이다. 진화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내의 모든 것을 밝혀주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라고 한다.”<sup>22)</sup>

밴 부스컬크는 당시 진화론과 과학에 심취한 학생들이 성경의 무오를 비판

20) 박희석, “프린스턴 신학이 후대에 끼친 영향”, 『100년 총신신학의 회고와 전망』 (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p. 145.

21) 마크 놀, “프린스턴 신학”, 데이빗 F. 웰스 편, 『프린스턴 신학』, 박용규 역 (서울:엠마오, 1994), p. 40.

22)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2), p. 169.

하였다고 회상했다. 1930년대 이전의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성경의 영감과 완전 무오를 수용했지만, 일부에서<sup>23)</sup>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을 배격하고, 현대 사조를 좇아 자유주의 사상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 3.2 1930년대 이후 성경관 대립

1920년대 3.1운동 이후 일본의 문화정치(文化政治) 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 가는 일이 장려 됐다. 외국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장로교의 남궁혁, 백낙준, 박형룡, 이성휘, 송창근, 채필근, 김재준, 윤인구와 감리교의 변홍규, 정경옥, 유형기, 갈홍기를 들 수 있다.<sup>24)</sup> 이들의 입국 이후 한국 교회에서 성경관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의 신학 사상의 갈등이 표출된 신학지가 바로 「神學指南」이었다. 신학지남은 1918년에 창간된 장로교의 평양신학교에서 발행하는 신학잡지로, 1916년에 창간된 감리교의 「神學世界」, 1922년에 출간된 성결교의 「活泉」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신학을 대변하는 신학 잡지였다. 그런데, 이 신학지남의 편집을 1928년 정월부터 한국인 남궁혁 목사가 맡으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그는 프리스트톤 신학교와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촉망받는 젊은 신학자였다. 그가 특별기고자로 김재준, 채필근, 송창근을 끌어드림으로써 논쟁이 시작되었다.<sup>25)</sup> 특별히, 김재준이 그의 신정통주의적 사상<sup>26)</sup> 때문에 1935년 5월부터 「신학지남」에서 기고권이 박탈<sup>27)</sup>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3) 감리교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정경옥 같은 인물은 자유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김철손, “한국교회와 자유주의 -정경옥교수연구- :정경옥과 성서연구”, 「신학과 세계」, 제 5권(1979), pp. 22-47을 보라.

24) Ibid., p. 607.

25) Ibid., p. 619.

26) 박아론, “밖에서 본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지남」 여름호(1993), p. 9.

27) 김재준이 기고권을 박탈당한 이유는 한국 교회를 편협하게 비판한 것과 바르트 신학 사상 문제 때문이었다. “1952년 4월 제37회 총회는 성경의 유오설을 주장한 김재준 교수의 면직 문제를 경기노회에 일임하였고 노회가 처단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1950년대 이르러 조선신학교 학생들의 진정서에 따라 총회가 ‘김재준 진술서’ 검토를 박형룡에게 위임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sup>28)</sup> 김재준은 성경의 영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가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그것이다. 우리가 받은 대로를 요약한다면 계시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그것이다. ... 그는 결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서 역사나 과학이나 연대표 등에 절대 무오를 기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지식 정도에 맡겨 두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문자적 무오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다소의 문자적 오류나 역사 과학 등 지식 부분의 불완전 때문에 구속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29)</sup>

김재준은 성경이 구원에 관하여 무오하나 역사와 과학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결음 나아가 그는 성경의 절대 무오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경건한 기만”이라고 꼬집고 있다.

“내가 성서 문자무오설을 배격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정당한 기초 위에 수립하려는 것인 까닭이다. 성경 자체의 사실이 문자적 무오를 입증해 주지 않는데 불구하고 구차스럽게 그 학설을 고집한다는 것은 ”경건한 기만“이다. 그러므로 스티언스박사 (Dr. Stearns)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경이 절대 무오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

처리한다는 결의에 의하여 총회 당석에서 즉결하기로 하였다. 즉결 결과 회장이 목사 김재준씨는 제36회 총회 결의위반급 성경유오설을 주장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6장 42조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선언하고 김윤찬 목사로 기도케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8회 총회록 p. 136, 138.

28) 최성수, “김재준과 박형룡의 논쟁에서 나타난 신학적 배타성과 한국신학의 과제로서 비판신학”, 『기독교사상』, 6월호(2001), p. 203.

29) 김재준, “축자영감설과 성서무오설에 대하여”, 『십자군』, 6월호(1950), p. 18.

것은 심히 선하고 경건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시킨 것으로서 선한 것도 없으며 경건한 것도 없는 것이다.’ 또는 성경의 역사적 과학적 또는 문장적 오류가 다소 있다고 말한데서 무슨 큰일이나 난 것 같이 야단 범석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sup>30)</sup>

김재준은 성경의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증거하는 측면(요 5:39)에서 무오하다고 보았다.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도 아니고, 철학을 가르치기 위한 철학 개론도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을 위함이지 다른 온갖 학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가르침에 반대하여 1947년 51명의 조선신학교의 학생들은 제 33회 장로회 총회에 “호소”형식으로 진성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그의 교육 내용이 “유시로부터 믿어오던 신앙과 성경관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다”<sup>31)</sup>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48년 총회가 김재준의 진술서를 검토할 것을 요청 받은 박형룡은 그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비록 진술서 안에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어 결국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고등비판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모세가 5경의 저자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인 ‘선지자 그리스도 사도들의 교훈과 기록에 불신임을 선언하여 성경 전부의 권위를 의문케’하는 것이고,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 무오설을 믿어온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능욕하는 것이다.”<sup>32)</sup>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위의 박형룡의 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성경은 문자적인 완전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김재준은 축자영감설에 대해 인간이 단지 기계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기에 “살아 계

30) Ibid., p. 18.

31)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56), p. 216.

32) 최성수, 「기독교사상」, p. 206.

신 하나님을 떠나 지식 자체를 이상화한 결과”에 버금가는 현상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교리적 노예”라고 불려질 만하고 또 “어떤 이념이 표현하려는 현실에 충실하려는 것보다도 그 이념 자체에 충성하려는 것이다”<sup>33)</sup>라고 했다. 그는 실존적인 해석학과 성경적인 근거자료들을 기반으로 성경을 보았다.

성경 무오 사상에 반대하여 김재준이 한 작업은 아빙돈 단권 주석 번역이다. 유형기 목사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감리교의 양주삼, 정경옥, 김창준, 전영태, 변홍규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장로교에서도 유형기 목사의 부탁을 받고 김재준, 송찬근, 채필근, 한경직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 주석이 성경 무오를 배척한다는 것은 단권성경주석의 기고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성경은 교회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인간적 오류가 다소(多少) 섞여 있다. 비록 불완전한 교회나마 신(神)의 구원적 활력의 기관임같이 다소의 오류가 섞여 있는 성경도 신의 성지(聖志)를 인생에게 보여주는 영감 깊은 성록(聖錄)이다. ... 성경 말씀이 종교적 견지에서 진리라 하여 반듯이 자연과학, 역사, 고고학에 있어서도 절대 무오 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다. 성경에 기록된 과학설은 성경이 섞어질 적에 유행되는 것이요, 성경에 있는 종교적 진리와 같이 영원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sup>34)</sup>

위의 주장은 김재준을 비롯한 성경 유오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에 맞서 장로교 총회에서는 “표준성경주석”을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박형룡 박사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sup>35)</sup> “아빙돈단권주석”의 출간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서울 남대문교회를 담임목사인 김영주가 창세기 저작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스캇의 영향을 받아 모세 저작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만국 주일학교 공과에 실었다. 이로 인해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위원회가 결정되기도 했다.<sup>36)</sup> 그들은 1935년 24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33) Ibid., p. 211.

34) 유형기편, 「단권성경주석」(서울: 신생사, 1935), p. 24.

35)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 636.

36) Ibid., p. 637.

보고하였다.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론은 근대의 파괴적 성경 비평가들의 주장하는 이론인 바, 그들은 과연 창세기의 모세저작을 부인 하는데 몇지 않고, 오경 전부를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세 시대로부터 여러 세기 후대 어떤 인물들이 기록한 위조문서로 돌립니다. 또 그들은 오경뿐 아니라 구약 다른 여러 책과 신약 여러 책을 후대인의 위조문서로 인정하며 그 기록의 내용에 신화와 고담과 허설과 각종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여 뉘으로 성경 대부분의 파괴를 도모하는 것이웨다. ... 그러나 파괴적 성경비평가들이 제출한 모든 비평적 이론이 모두 정통 성경학자들의 변해에 의하여 일일이 반박되었고 성경이 참되다는 증거는 여전히 확립하여 있나이다. 그중에 창세기를 포함하는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오경 자체의 증거와 신약 다른 책들의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나이다.”<sup>37)</sup>

이처럼 1930년대 이후 성경 무오를 부인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면서 신학 논쟁은 계속적으로 커져갔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를 비롯한 총회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sup>38)</sup>하고,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변호하였다. 성경 무오 논쟁에 있어서 서로의 이견일치를 볼 수 없었기에 급기야 분열을 낳게 됐다. 1940년 김재준, 채필근, 송창근 등이 주축이 되어 평양 신학교와 신학적 단절을 선언하고, 성경 무오를 거부하는 조선 신학교를 설립했다. 그들은 1945년부터 정통 신학과 성경 무오 및 축자영감을 더욱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반하여 1947년 박윤선 목사를 비롯한 53인이 평양 신학교의 역사적, 신학적 계승을 잇기 위해 고려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여기에는 화란의 전통과 프린스턴 구학파의 전통을 접목시키려는 박윤선 풍의 개혁주의가 상당히 반영되었다.<sup>39)</sup> 이 두 학교를 1949년 총회에서 서로 통합할 것

37)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pp. 179-180.

38) 1935년 제 24 총회는 김영주의 자유주의 입장에 철퇴를 가하고 단죄 처리하였다.;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 241.

39)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 808.

으로 결정하였으나, 결국 1952년 4월 제 37차 총회<sup>40)</sup> 이후 경기노회를 중심으로 조선신학교 측이 분리해 나가면서 교단적 분열이 발생했다. 교단 분열 원인을 김정준은 “한국 장로교회는 성서 비평학 문제를 중심으로 1953년 예장과 가장이란 두 개의 장로교회로 갈라지게 되었다”<sup>41)</sup>라고 주장했다.

성경무오에 관한 사상적 이견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특히, 성경무오를 주장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박윤선 박사는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성경의 체계를 올바르게 본 신학이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절대적 주권자인 인격적 신으로 믿으며, 계시 의존 사색을 가진다. 칼빈주의가 가지는 성경관은 역시 인격 본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기적 영감설이다. 유기적 영감설은 체계적으로 모두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이렇게 개혁과 신학은 유기적 영감설을 가지는 동시에, 선지적 사도적 직접 영감으로 된 성경의 기록은 그 전체에 있어서나 부분에 있어서나 문자에 있어서 유기적 연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믿는다.”<sup>42)</sup>

위의 진술대로 성경 무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기에 김재준의 주장을 용납할 수 없었다.

### 3.3 1960년대 이후 성경 무오 부인(否認)

분열 이후 김재준은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그

40) 1952년 4월 제 37회 총회는 성경의 유오설을 주장한 김재준 교수의 면직 문제를 경기노회에 일임하였고, 노회가 처단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처리한다는 결의에 의하여 총회 당석에서 즉결하기로 하였다. 즉결 결과 회장이 목사 김재준씨는 제 36회 총회 결의 위반급 성경 유오설을 주장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 6장 42조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선언하고 김윤찬 목사로 기도케 했다. 제 38회 총회록, p. 136.

41) 김정준, “한국교회와 성서해석 동 문제”, 「기독교사상」, 2월호(1967), p. 322.

42) 박윤선, “우리의 성경”, 「신학지남」 여름호(1967), p. 13.

의 글 “한국 신학대학의 역사적 위치(位置)”에서 성경 무오를 주장하는 측을 향하여 ‘정통적 이단’<sup>43)</sup>이란 표현을 썼다. 이 표현은 성경이 축자영감설로 일점일획(一點一劃)도 틀리지 않다는 주장을 문자주의라고 비꼬는 용어였다. 그는 미국 남북 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철의 장막을 세워 한국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정통주의왕국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이 정통주의 사상의 주입과 성경 연구의 비판을 없애는 비인격적인 요소로 간주했다. 김재준은 또 다른 글에서 “우리는 한국장로교회의 신학교육이 몹시 근시안적이었다는 것을 개탄한다”<sup>44)</sup>고 기술했다. 그는 한국신학대학을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신학을 하는 곳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독창적인 신학을 하는 곳으로 자유, 자주, 비판, 진보적, 독립적 활동을 하기에 역사를 창출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sup>45)</sup> 조선신학교와 한국신학대학을 계승한 한신대학은 이후로 보다 진보적인 입지를 굳히고, 성경 영감과 무오를 비판<sup>46)</sup>했다.

이와 비슷하게 W. C. C. 문제<sup>47)</sup>로 분열된 장로교 통합 측의 장로회신학대학 박창환 교수 역시 성경의 부분 영감설을 주장했다. 그는 “성경무오설에 관하여”란 논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의 책 서론에서 ‘성경이 일점일획도 틀림없는 책’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어린이스럽고 단순할 수밖에 없다”<sup>48)</sup>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주적 인식을 가지고

43) 김재준, “한국신학대학의 역사적 위치”, 『신학연구』 제 3집, 7월호(1957), p. 6.

44) \_\_\_\_\_, “한국교회의 신학운동”, 『기독교사상』, 1월호(1960), p. 2.

45) \_\_\_\_\_, “한국신학대학의 역사적 위치”, p. 7.

46) 한신대 교수 김경재는 “박형룡, 박윤선으로 대표되는 한국 근본주의적 보수 신학은 좋게 말해서 17세기 장로교 칼빈주의와 청교도적 경건주의가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불어 닦친 서구 계몽정신의 격류를 헤쳐 나오는 동안 경직화된 기독교의 자기 방어적 보수정통신학이다. 비판적 성경연구 태도나, 역사주의 및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자연과학의 연구결과에 문호를 열기만 하면, 기독교 진리는 그 뿌리부터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 가운데 형성되어 온 신학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김경재, “한국신학의 태동과 흐름”, 『기독교 사상』, 2월호(2002), pp. 131-132.

47) 이점에 대해 김의환 박사는 “1959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W.C.C. 문제 등으로 승동 측과 연동 측이 다시 분열되자 신학과 신앙 노선이 같은 승동측과 고신 측은 합동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가졌다”라고 쓰고 있다.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 222.

48) 박창환, “성경무오설에 관하여”, p. 82.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김재준과 동일하게 “성경이 무오하다는 생각은 교회가 교리화한 사상이다”<sup>49)</sup>라고 주장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글이긴 하지만 사람의 글이므로 제한성을 갖기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sup>50)</sup> 이는 인간이 본질상 제한적이며, 상대적인 존재이기에 무슨 일이든지 완전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역시 이것을 아시고 그에 걸맞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다는 사상에 기초한다. 박창환은 성경의 원본 역시 인간의 실수와 부주의와 그릇된 판단 등의 제한성 때문에 다소의 오류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sup>51)</sup>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과학적 무지와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에 성경의 가치와 권위가 떨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계명대학교 교수였던 이호형은 “성서의 절대화는 개신교를 새로운 영지주의로 변질시켰다”란 논문에서 성경을 절대화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건과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서로 다른 것이기에 성경 66권 속에 포함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시하고 또 그 모든 말씀 자체를 절대시하면서 믿고 받아드리는 것을 “자연적인 오류”<sup>52)</sup>라고 칭한다.

이처럼 성경의 완전 무오를 부정하고 축자영감이 교리적 배경의 산물이며, 주입식 교육의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진리이나 인간의 작품이기에 과학적, 역사적 오류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한국교회에서 자유주의 한 주류로 정착한 성경관은 부분 영감설이라 할 수 있겠다.

---

49) Ibid., p. 83.

50) Ibid., p. 86.

51) Ibid., p. 89.

52) 이호형, “성서의 절대화는 개신교를 새로운 영지주의로 변질시켰다”, 『기독교사상』, 9월호(2004), pp. 252, 253.

## IV. 성경무오 부인의 사상적 배경 고찰

김재준 목사는 성경 영감과 무오를 가르치는 것이 교리적이며, 서양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주입식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식의 독창적이며, 인격적인 신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재준과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인물들의 사상은 한국의 독특한 성경관이 아니다. 오히려, 합리주의와 신정통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두 사상적 배경은 김재준 이후의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의 기본 전제로 이용되고 있다.

### 4.1 '신학합'의 자율성

김재준은 1920년대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그가 교육 받을 때는 일본 기독교에 신신학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던 시기였다. 특히,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1919년과 1922년에 출간된 이후 일본에서는 바르트 신학 사상<sup>53)</sup>이 직접적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 김재준은 유학 전부터 일본서 출판된 기독교 서적에 심취했고, 이후 1925년부터 4년 동안 일본의 청산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이곳에서 사상과 학문적 자유를 느꼈다고 고백하는데, 그를 감화 시킨 사람은 비옥근안정(比屋根安定)선생, 별소매지조옹(別所梅之助翁)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청산학원을 “래디컬한 자유주의였고, 뉴욕 유니온의 출장소(出張所)격이었다”<sup>54)</sup>고 말했다. 때문에 자신은 자신 있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어느 정도 분별할 지식을 습득했다고 주장 한다. 김재준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53) David Wells 교수는 신정통주의의 특징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지적했다. “(1)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신정통주의 학자들이 성경 내용을 분석하는데 비판적 전제들을 받아들였다. (2) 또한 모든 계시는 이성과 배치되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 저편에 있다는 칸트의 전제를 공유했다. (3) 모두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나, 성경 말씀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각과 통찰로써 신학 내용을 정립한다는 신학 방법론을 공유했다.”; 로저 니콜, “신정통주의 축소 성경관”, 노르만 L. 가이슬러외, 「성경무오 도전과 응전」,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97), pp. 151-2 재인용.

54) 김재준, “내가 영향 받은 신학자와 그 저서”, 「기독교사상」, 7월호(1964), pp. 24, 25.



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넘어가 프리스톤에서 메이첸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곳에서 근본주의란 무엇인지 자신의 실존으로 느끼고 배웠다고 고백한다. 그는 나름대로 자신 만의 신학으로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절충하여 근본적인 것은 갖되 자유롭게 복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길을 설정했다. 이는 곧 그로 하여금 학(學)이나 기록(記錄)보다 상상(想像)과 인간(人間) 자체의 신비한 세계를 추구하게 했다. 그의 신학 함에 있어 인간의 자율적 사고는 정통주의를 고수하는 한국 장로교회가 “통조림”<sup>55)</sup>처럼 딱 막힌 곳이었다. 이런 연고로 새로운 사상을 펼치기 위해 “십자군(十字軍)”이란 잡지를 내었다고 한다.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이 잡지를 통해 그는 성경 절대 무오설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믿는 학자들과 학생들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조선신학교를 이어 한국신학대학에 전수되었고, 장로회신학대학과 타 교단에 영향을 미쳤다.

어쨌든, 김재준이나 그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이들의 기본 전제는 “인간 이성의 자율성”이다. 즉, 합리주의<sup>56)</sup>에 기초하고 있다. 합리주의는 14-16세기에 발흥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계몽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계몽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데카르트를 통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중세 사상의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철학과 과학의 기초로 체계적 회의 방법을 소개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시에 연역적 이성의 우산 밑에 모든 자기주장을 끌어넣는 작업이었다.<sup>57)</sup> 인간의 이성을 신앙 위에 두게 된 계몽사상은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부패라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자유 사고의 시대’는 인간 속에 자연적으로 숨겨진 지적, 도덕적 잠재능력을 강조했고, 후에 바르트가 말한 ‘절대 인간’(absolute man) 사상을 승인하게 했다. 계몽사

55) Ibid., p. 25.

56) 김재준은 예레미야 당시에 법전(法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에 기록된 여호와와의 전(典)이라면 신명기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 표현은 합리주의 신학의 대표적 인물인 벨하우젠의 모세오경의 견해를 좇은 것이다. 김재준, “전기적으로 본 예레미야의 내면생활”, 『신학지남』 15권 5호, 9월호(1933), p. 47.

57) 부루스 데마레스트, “계몽시대의 성경”, 노르만 L. 가이슬러 외, 『성경무오 도전과 응전』,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88), p. 13.

상의 핵심인 인간 두뇌의 합리적 작용이 만물 척도의 표준으로 여기는 것이기에,<sup>58)</sup>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진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나, 속죄, 부활, 기적을 미신 시대의 잔재로 간주해 버렸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존 로크(John Locke)는 ‘영감’은 이성에 맞지 않는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고, 존 톨란드(John Tolland)는 이성이 종교 진리의 주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sup>59)</sup> 로크의 말처럼 이성에 기초한 신학함은 영감이 자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었기에 수용될 수 없는 교리가 되고 말았다.

합리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성의 우월성과 자율성은 결국, 독일의 비글(Beggle)로 하여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 되었으며 인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결론짓게 했다. 이는 개혁주의 학자 베르카우어(G. C. Berkouwer)가 그의 저서 “Holy Scripture” 에서 부분 영감설, 즉 영감은 성경 저자의 목적에 국한 되는 것이지 그 저자의 모든 사소한 기록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sup>60)</sup> 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인간의 자율적 사고를 근거로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고, 부분 영감을 주장하는 이들의 기본 사상이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결론짓게 된다.

#### 4.2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영향

김재준과 성경 완전 무오를 부정하는 이들의 또 다른 사상적 배경은 바르트주의(신정통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61)</sup> 물론 김재준은 “바르트(K. Bart)와 부루너(E. Brunner)에게서 감화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사(師事) 하지는 않았다”<sup>62)63)</sup>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입국하여 쓴 글들을 살펴보면 신정

58) Ibid., pp. 15, 16.

59) Ibid., pp. 20, 21.

60) Ibid., p. 43.

61) 한철하, “김재준의 성경과 신정통주의신학”, 『신학사상』, 제 50집(1985), p. 512.

62) 김재준, “내가 영향 받은 신학자와 그 저서”, p. 42.

63) 윤성범 교수는 김재준이 바르트 주의자라고 간주했다. 1938년 『Korean』에 실린 그의

통주의 사상이 밑에 깔려 있음을 인지한다. 이를테면, 그의 논문 “한국교회의 신학운동”에서 성경관이 “그리스도 중심”에 놓음으로써 바르트의 영향 하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맘에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그 핵심으로 삼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비평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한다.<sup>64)</sup> 특히, 이 전제가 정통주의자의 성경에 대한 축자적인 광신을 포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자의 희박하고 방자한 막연성을 막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객관성과 우리의 주관의 만남이 만날 수 있고, 사도적 신앙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심정으로 음미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sup>65)</sup>

이와 같은 견해는 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술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주관성이기 때문에 교의와 동일화할 수 없고, 어떤 체계로 조직화 할 수 없다고 했다.<sup>66)</sup>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만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sup>67)</sup>고 언급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되게(becoming)<sup>68)</sup>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sup>69)</sup> 이 전제 하에 바르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을 했다. 한국의 바르트 신학자들로 경남 노회의 윤인구, 연세 대학교의 갈홍기 교수, 이화 여자 대학교의 김영의 교수, 훗날 조선 신학교 교장을 지낸 송창근 목사, 그리고 김재준 교수가 있다.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p. 133.

64) 김재준, “한국교회의 신학운동”, 「기독교 사상」, 1월호(1960), p. 17.

65) Ibid., pp. 16, 17.

66) 박봉량, “칼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신학연구」 제 6집, 5월호(1960), p. 52.

67) Karl Barth,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Church Dogmatics I*, G. W. Bromiley and T. R. Torrance trans. (Edinburgh: T.&T. Clark, 1975), p. 458.

68) Ibid., p. 530.

69) 박윤선 박사는 바르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말씀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혁파 교회의 성경 교리를 내어던지는 말이다. 개혁파 교회는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Autopistia)을 믿는 것이다. 독자적 신임성이란 것은 인간이 성경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빙크는 말하기를 성경은 스스로의 권위를 그것 자체에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독자적 신임성이자라고 하였다.”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위기신학”, 「신학지남」 여

는 성경 언어가 인간 언어로서 그 언어학적, 역사적 및 신학적 성격에 있어서 무오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성경이 인간적 유오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sup>70)</sup>고 강조하는데, 이는 김재준이 성경에 과학적, 역사적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는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치한다.

1930년대 이후 김재준을 비롯한 바르트주의자들<sup>71)</sup>에 의한 신정통주의 사상 유입은 바르트 식<sup>72)</sup> 성경 해석, 적용을 낳았다. 예를 들면, 바르트는 성경의 역사성에 있어서 실제 역사(Historie)와 의미사(Geschichte)로 구분시키고 있다. 이 구분은 성경의 역사가 실제와 다를지라도 그것을 신앙<sup>73)</sup>으로 받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인데, 이 영향이 설교에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소망 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는 “나는 그 부활이다”란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다.

“본문에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을 때 누이동생인 마르다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부활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세상 끝 날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개념에서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이라면 역시 흥미가 없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 있었기에 정의가 영원하고 사랑의 영원함이 나타난

름호(1980), p. 96.

70) Ibid., p. 532.

71) 지동식은 한국교회의 신정통주의 신학운동은 지동식, 전경연, 박봉량, 박순경, 이종성에 의해 장신, 한신 등 장로교의 주류적 조직신학 이론으로 자리 잡었다고 보고했다. 지동식, “내가 영향 받은 신학자와 그의 저서”, 『기독교사상』, 8, 9월호합본(1963), pp. 19-21; 이종성, “한국교회의 성서이해”, 『기독교사상』, 7월호(1970)를 보라.

72) 총신대학교 및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간하배는 김재준의 육체적 부활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그는 보수주의가 즐겨 쓰는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임을 매우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기엔 거의 다 자신의 사상이 아니면서 마지못해 꾸며낸 것이며... .”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 p. 65.

73) 한중희, “칼바르트의 성경관비판”, 『신학지남』 (1985), p. 183.

것입니다. ...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우리도 오래 산다 라는 뜻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sup>74)</sup>

여기에서 설교자는 몸의 부활에 대해 흥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예수의 부활 사건이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신정통주의의 의미적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부활의 실재성보다 그것을 받아드리는 신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재준과 현대 신학계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완전 무오를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독자적인 신학함의 결과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성의 자율성에 전제하고 있으며, 신정통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시는 행위를 규제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오히려, 타락 이후 이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신학함’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재준이나 여타 학자들이 성경 완전 무오를 받아 드리는 것은 답답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신학과 신앙과 행위의 출발점임을 인정해야 한다.

## V. 성경 영감과 완전 무오의 성경적, 신앙적 근거

### 5.1 성경 완전 무오의 자증

성경 완전 무오는 성경의 영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 복음주의자인 헤르만 리더보스(Herman Ridderbos)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모두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성령의 영감 되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완전하나 성경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고 했다.<sup>75)</sup> 즉, 사도나 선지자들이 성경을

74) 「곽선희 설교집」 제 5권, p. 149.

75) 헤르만 리더보스, 「성경의 권위」, 김정훈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p. 44.

기록할 때 그들의 인간적 제한성을 가지고 기록하였으므로 부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한국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영감론’이다. 하지만, 성령의 영감이 그저 일부에만(구원에 관하여) 국한되어 있고, 여타(餘他)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는 사람의 무지에 맡겨졌다는 것이 타당한가?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영감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성경이 영감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뜻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θεόπνευστος’란 단어를 NASB에서는 “inspired by God”라고 번역했고, NIV에서는 “God-breathed”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θεόπνευστος’를 만일에 능동형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경우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심”(in-breathing)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의 기록과정에 작용한 하나님의 영감의 특별한 기능이나 효과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분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든지 혹은 아니면 저자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어떤 식으로든 성경의 기록 과정에 끼친 영감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동형인 경우에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내쉬심”(God-breathed)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감이라는 성경의 신(神)적 본질과 기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76)</sup>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부분적으로 주입되거나 하나님의 영감에 계도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감인 것이다. 한편 ‘θεόπνευστος’가 수동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말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권위라는 성경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해당 본문은 바울이 성경의 신적 기원을 주장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토머스(T. A. Thomas) 역시 ‘θεόπνευστος’를 사용한 바울의 의도가 모든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서

76) Sinclair B. Ferguson, “성경의 자증”, 간하배 편, 『성경무오와 해석학』, 정광옥 역 (서울:엠펙, 1988), pp. 77, 79. G. W. Knight III,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96), pp. 444-447. Robertson Nicoll (ed.),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Vol.4* (Grand Rapids: Eerdmans, 1970), p. 175.

기원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지성에 그 기원을 갖는다고 함에 있다고 말했다.<sup>77)</sup>

윌리엄 J. 아브라함(William J. Abraham)은 이 단어를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 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했다.<sup>78)</sup> 물론, 신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 교회에서 부분 영감설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성경 저자에게 감동이 불어 넣으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기에 기계적이지 아닌 이상 인간적 한계성을 뛰어 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영감이 경이로운 이유는 성경의 신적 기원으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신적 진리와 각 저자의 독특한 인간성이 더불어 보존됨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저자들의 인간적 특성을 유린함이 없이도 그들이 거짓이나 틀린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베드로후서 1장 20, 21절을 보면 성경의 영감 방식이 두 가지의 요소로 특징지어진다. 첫째는 성경 저자들의 삶, 경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적 감독이다. 둘째, 성경은 신적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활동한 결과이다. 성령은 저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특히 성경의 제작에 역사하셨다. 그는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 저작물이 하나님 자신의 말로서 보존되도록 하셨다.<sup>79)</sup> 인간의 언어가 신의 언어를 담지 못하기에 제한된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충분히 사람의 언어로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마저도 하나님의 창조품(品)이기 때문이다. 이를 프레임(John Frame)은 잘 지지해 주고 있다. “인간의 언어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언어에 있어서도 주인이시기 때문이다.”<sup>80)</sup>

그러므로, 성경의 영감과 완전 무오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77) T. A. Thomas,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Phi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2), p. 6; 배종수, “성경영감론에 관한 소고”, 『신학논문 총서 조직신학 1』(서울: 학술정보자료사, 2004), p. 95 재인용.

78) 권성수, 『성경 해석학』(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p. 80.

79) Sinclair B. Ferguson, “성경의 자증”, p. 80.

80) 간하배, “개론적 역사 성경 무오, 해석학,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간하배 편, 『성경무오와 해석학』, 정광옥 역 (서울: 엠마오, 1988), p. 22.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주입하셨다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제한성을 간과하셨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자의 특성이나 성품, 기질, 교육, 교양, 심지어 문체까지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유기적 영감을 하셨다. 이런 면에서 워필드는 영감이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영감의 본질은 감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성경의 발생은 인간들의 작인과 하나님의 작인이 여러 가지로 상호 협력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sup>81)</sup> 성경의 어떤 사상 또는 특정한 윤리적인 주제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모두가 영감 되었다는 축자 영감을 하셨고, 그것은 어느 한부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에 완전하게<sup>82)</sup> 하셨다(완전 영감).<sup>83)</sup>

## 5.2 성경 영감의 범위

성경은 영감이 어느 한부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5:18로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하셨는데, 여기 율법은 분명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어떤 이들은 영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거론하지만, 디모데후서 3:16에서 “모든 성경”<sup>84)</sup>, 곧 성경의 모든 각 부

81) 정규철, 「성경 무오 역사적 증명」(서울: 그리심, 2002), p. 272.

82) 워필드의 다음과 같은 성경의 완전 영감론의 정의했다. “성경의 완전 영감의 교회적 교리는 성경이 그것의 모든 요소들이, 신비로써 또는 이성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사물들, 신앙과 실행과 함께 역사와 과학의 사건들, 사상과 함께 단어들이 다 같이 부분적으로 아니고 완전히 영감 되었다.”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48), p. 113.

83) 정창옥,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 그 성경적 근거”, 「신학지남」 가을호(2003), pp. 280, 281, 282.

84) 이 표현을 번역함에 있어 일부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유익하며”로 하나,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은 역시 유익하며”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번역 모두가 구약 성경이 영감되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 벌코프, 「성경 해석학」, 윤종호·송종섭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9), pp. 46-47



분이 빠짐없이<sup>85)</sup> 영감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누가복음 24:25-27에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란 표현을 통해 지지 해주고 있다.<sup>86)</sup>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요 10:35)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약 성경이 영감된 말씀으로 무오함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며, 베드로후서 3:15-16에서는 바울 서신을 구약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 즉 바울사도가 쓴 서신을 ‘다른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둠으로 사도들의 서신이 성령의 영감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2:13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회가 구약 성서의 영감과 무오를 인정했다면, 사도적 전통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혹자는 이것 역시 바르트주의자처럼 고대의 일방적인 신앙 고백 수용 문화 하(下)<sup>87)</sup>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을 믿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증거 되고 있다. 만일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당시 문화에 종속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나아가, 예수님과 사도의 글을 담은 성경 자체가 신적 권위를 증거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야 마땅하다.

를 보라. G. W. Knight III의 *The Pastoral Epistles*, pp. 444-447을 보라.

85) “모든 성경”의 다른 견해로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변조은은 디모데후서 3:16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 말의 핵심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 구원의 길을 가르칠 수 있으며 교훈과 권면과 의예의 훈련에 유익하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과 행실을 가르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데 그저 모든 성경이 무오하다고 오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p. 323.

86)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p. 285, 286.

87) Wittgenstei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들은 이런 태도를 자신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문화적 전제로서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헬레니즘 세계는 신적인 영감을 받은 글이라는 관념에 익숙해 있었고, 유대교에 있어 구약성서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Anthony C. 씨슬튼, 「두지평」, 권성수의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p. 663.

### 5.3 성경 무오 신앙과 한국교회의 역사 경험

성경 영감과 완전무오를 믿는 것은 신앙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일제 시대 신사참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신사 참배 논쟁은 한국교회에 큰 이슈(issue)였다. 김양선은 신사참배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앙양심을 유린당하는 본격적인 종교 박해였고, 교회 전체가 당한 대박해였다”<sup>88)</sup>고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1936년 3월 21일에 미국으로 강제 퇴거를 당한 매쿰의 경우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매쿰(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 윤산은)은 1935년에 신사 참배를 할 것을 강요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던 평양신학교의 박형룡 박사와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의 조언을 따라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sup>89)</sup> 뿐만 아니라 평양의 세 개의 미션 학교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만 폐교를 각오하고 신앙 양심을 좇아 이를 거절했다.

반면에, 한국 천주교회는 1936년 5월 25일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그 참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감리교회 역시 동일한 이유로 신사참배를 공식화했다.<sup>90)</sup> 특히, 감리교 지도자 7명은 1945년 5월, 현인신인 천황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래 놓는다는 것이 천황에 대한 불경이라든가, 부활 신앙이 미신이기 때문에 신앙문답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을 하던 일본 교회와 화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캐나다 선교회 서고도 선교사(William Scott)는 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학교를 폐쇄하고 교육 사업 전체를 정부에 맡기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맞지 않는다<sup>91)</sup>는 입장을 밝혔다. 1938년 채필근은 한 잡지를 통해 “국민정신 총동원이 필요한 이때에 종교인

88) 김양선,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p. 19.

89) *From C. B. McAfee to J. G. Holdcroft 1935.12.26*;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 716 재인용.

90)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 721.

91) *Ibid.*, p. 747.

도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야말로 오히려 이단이다”<sup>92)</sup>라고 주장했다. 그는 1939년 3월에 송찬근, 김재준과 함께 평양신학교의 폐교와 함께 그들의 신학과 정통성은 단절하고 주체적인 신학교육을 모토로 한 “조선신학교”를 설립했다. 이런 사실은 채필근이 학교 설립 목적을 대변한 글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선교사 우월권, 선교사 주권을 유지하려면 조선 교역자의 질을 선교사 이하의 선에 정지시켜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신학교육을 완전히 선교사가 독점하는 방법을 취할 밖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sup>93)</sup>

하지만, 그들은 일본인을 이사장으로 세우고, 조선교회와 일본 교회의 단일화를 추구했다.<sup>94)</sup> 반면에 시대의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 적용하였던 이들과 달리 성경 완전 무오를 믿던 장로교인들은 1938년 일본의 노골적인 협박과 술책<sup>95)</sup>으로 제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하기까지 반대했다. 결국, 일본의 무력 앞에 상당수 지도자들이 굴복하고 말았지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된 후 주기철, 주남선, 한상동, 손양원, 한부선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일에 평양신학교도 동참하다가, 김인준, 박형룡 교수가 불구속 입건되었고, 학교는 1938년에 폐교되었다. 더욱이 1940년에는 보수주의의 맥을 이어온 신학교 기관지 신학지남도 폐간되었다. 또한, 순교자들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담은 진성서를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선언한 박관준 장로는 1939년 가을에 옥중 순교했고,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영감된 말씀의 신앙을 지키

92) 「청년」4월호(1938), p. 6;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 742 재인용.

93)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p. 195.

94)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 750.

95) 김양선은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교회 장 내외에는 수백 명의 사복경관으로 완전 포위되었고, 강대 아래 전면에는 평남 경찰부장을 위시하여 고위 경관 수십 명이 긴 검을 번쩍이면서 기라성 같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총대들의 좌우에는 그 지방 경찰관 2명씩이 끼어 앉았고, ... 주기철 목사, 이기선목사, 김선두 목사등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는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은 사전에 모두 구금되었고...”. 김양선,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 p. 32.

다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핍박을 받다가 태평양 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sup>96)</sup> 이는 철저히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유일신 신앙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정신 때문이었다. 이 같은 신사참배 반대 역사는 해방 후 교회가 민족적 신임을 얻게 하였고 곧 획기적인 성장과 연계되었다.

##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나타난 성경 영감과 완전 무오를 논의했다. 성경 영감과 완전 무오는 성경이 자증<sup>97)</sup>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드린다 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업<sup>98)</sup>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기사를 지도하셨고, 그의 계시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간 저자의 경험과 소양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완성된 계시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으며, 인간 언어의 창조주로서 전달코자하는 바를 완벽히 담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진행과 그 속에서 사는 그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 되어 완전 무오한 책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계시의 조명 아래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인간 중심적인 ‘신학함’은 곧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

96)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p. 728, 730, 734.

97) Grosheide는 “성경 자체가 그 신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그 신적인 성경은 성경 자체 속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의미로 성경 자증을 사용한다. F. W. Grosheide, *Algemeene Canoniek van het Nieuwe Testament*(Amsterdam, 1935), p. 136. A. B. 듀토잇, 「신약정경론」,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94), p. 137 재인용.

98) 워필드는 공동작업이라는 의미의 ‘concurive’를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25. 와 J. I.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London: IVF, 1958), p. 79를 보라.

하는 것이 될 것이며, 교회의 존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용납하지 못할 부분은 제거할 것이 아니요,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 수납해야 한다. 미숙한 과학이나 고고학은 끊임없이 발전되는 것이며,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성경을 자유롭게 사색하는 것이 신앙적, 인격적인 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성경의 문자 하나 하나를 무오하다고 믿고,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할수록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된다. 사회는 물리적, 의협적인 행위로 변혁되는 것이 아니라 영감된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참고문헌

### 국외 서적

- Albert Schweitzer.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A Critical Study of Its Progress from Reimarus to Wrede*, W. Montgomery trans. London:A &C. Black. 1910.
-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48.
- George W. Knight III.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Henry S. Coffin. *Some Christian Convictions*. New Haven:Hodder & Stoughton. 1915.
- Jay Grimstead. "How the Inte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Began". Crosswinds volume II. number 2. 1994.
- J. I. Packer. *Fundamentalism and the Word of God*. London: IVF. 1958.
- John Macquarrie. *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 New York:Scribner's, 1977.
- Karl Barth.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Church Dogmatics I*, G. W. Bromiley and T. R. Torrance trans. Edinburgh:T.&T. Clark. 1975.
- Robertson Nicoll (ed.).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0.
- W. G. Kuemmel. *The NT: The History of the Investigation of its Problems*. Nashville. 1972.

### 국내 서적

-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서울:도서출판 실로암. 1991.
- \_\_\_\_\_. "개론적 역사 성경 무오, 해석학,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간하배 편. 「성경무오와 해석학」. 정광옥 역. 서울: 엠마오. 1988.
- 권성수. 「성경 해석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 \_\_\_\_\_.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김의환 전집 3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56.
- \_\_\_\_\_.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 게하르트 하젤. 「신약신학:현대논쟁의 기본 이슈들」.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94.
- A. B. 듀토잇. 「신약정경론」.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94.
- 로저 니콜. “신정통주의 축소 성경관”. 노르만 L. 가이슬러 외. 「성경무오 도전과 응전」.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97.
- 루이 벌코프. 「성경 해석학」. 윤종호 · 송종섭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9.
- 롤란드 해리슨. 「구약 서론 (상)」. 류호준.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마크 놀. “프린스톤 신학”. 데이빗 F. 웰스 편. 「프린스톤 신학」. 박용규 역. 서울: 엠마오. 1994.
- 박영규. 「한국기독교교회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_\_\_\_\_.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2.
- 박창환. 「교회와 신학」. “성경무오설에 관하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70.
-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브래들리 J. 롱펠드. 「미국장로교회 논쟁」. 이은선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2.
- 부루스 데마레스트. “계몽시대의 성경”. 노르만 L. 가이슬러 외. 「성경무오 도전과 응전」.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88.
- Sinclair B. Ferguson. “성경의 자증”. 간하배 편. 「성경무오와 해석학」. 정광옥 역. 서울: 엠마오. 1988.
- Anthony C. 씨슬튼. 「두지평」. 권성수의 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0.

- 유형기편. 「단권성경주석」. 서울: 신생사. 1935.
-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 정규철. 「성경 무오 역사적 증명」. 서울: 그리심. 2002.
- 헤르만 리더보스. 「성경의 권위」. 김정훈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 신학 잡지 및 단행 논문

- 광선회 설교집 제 5권.
- 김경재. “한국신학의 태동과 흐름”. 「기독교 사상」 2월호. 2002.
- 김정준. “한국교회와 성서해석 동 문제”. 「기독교사상」. 2월호. 1967.
- 김재준. “축자영감설과 성서무오설에 대하여”. 「십자군」. 6월호. 1950.
- \_\_\_\_\_. “한국신학대학의 역사적 위치”. 「신학연구」 제 3집. 7월호. 1957.
- \_\_\_\_\_. “한국교회의 신학운동”. 「기독교사상」. 1월호. 1960.
- \_\_\_\_\_. “전기적으로 본 예레미야의 내면 생활”. 「신학지남」 15권 5호. 9월호. 1933.
- \_\_\_\_\_. “한국교회의 신학운동”. 「기독교 사상」. 1월호. 1960.
- 김철손. “한국교회와 자유주의 -정경옥교수연구- : 정경옥과 성서연구”. 「신학과 세계」. 제 5권. 1979.
- 박봉량. “칼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신학연구」 제 6집. 5월호. 1960.
- 박아론. “밖에서 본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지남」 여름호. 1993.
- 박윤선. “우리의 성경”. 「신학지남」 여름호. 1967.
- \_\_\_\_\_.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위기신학”. 「신학지남」 여름호. 1980.
- 박희석. “프린스턴 신학이 후대에 끼친 영향”. 「100년 총신신학의 회고와 전망」. 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 배종수. “성경영감론에 관한 소고”. 「신학논문 총서 조직신학 1」. 서울: 학술정보자료사. 2004.
- 이정호. “한국교회의 성서 이해”. 「기독교 사상」, 7월호. 1970.
- 이호형. “성서의 절대화는 개신교를 새로운 영지주의로 변질시켰다”. 「기독교사상」. 9월호. 2004.



- 정창욱.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 그 성경적 근거”. 「신학지남」 가을호. 2003.
- 지동식. “내가 영향받은 신학자와 그의 저서”. 「기독교사상」. 8,9월호 합본. 1963.
- 최성수. “김재준과 박형룡의 논쟁에서 나타난 신학적 배타성과 한국신학의 과제로서 비판신학”. 「기독교사상」. 6월호. 2001.
- 한종희. “칼바르트의 성경관비판”. 「신학지남」. 1985.
- 한철하. “김재준의 성경과과 신정통주의신학”. 「신학사상」. 제 50집. 1985.
- 제 38회 총회록.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